

# “석전과 한암 스님은 한국불교 새 좌표”

한국불교학회, 4월 18일 춘계학술세미나

근대 한국불교의 최고 석학인 석전(石顛, 1870~1948) 스님과 일제강점기 윤리적인 바탕 위에서 선 수행으로 일생을 산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의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석전 스님과 한암 스님은 계율과 교학, 선수행을 통해 근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다진 선지식이다.

석전 스님은 1929년 조선불교 선교양종에서 중정으로 추대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1945년 해방 이후 초대 교정에 오르는 당대 불교계 대표 인사였다. 석전 스님은 <계율약전>이라는 교재를 편찬해 승려교육을 통해 청정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한암 스님은 당시 최고 선사로, 1925년 강남 봉은사 조실 자리를 ‘내 차리리 천고에 자취를 남기는 학이 될 지언정, 불날에 말 잘하는 영부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평창 오대산에서 주석하며 계율정신을 강조해 27년간 선수행에 매진했다. 1929년 석전 스님과 함께 중정에 추대되고 1935년 선학원에 의해 재차 중정으로 추대됐으며 1948년 조선불교조계종 성립 후 3대 중정, 해방후인 1948년에는 조계종 초대 교정으로 추대됐다.

평창 월정사와 고창 선운사와 공동으로

‘석전과 한암, 시대정신을 말하다’

월정사·선운사와 공동 개최

계율관·시대의식으로 총 2부 진행

학자 10명 발표, “불교 나갈길 모색”

개최하는 이날 세미나는 총 3부로 1·2부 발표와 3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 스님의 ‘석전과 한암을 통해 본 불교와 시대정신’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근대 한국불교에서 한암의 역할과 불교사적 의의’ △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의 ‘한암의 선과 계율정신’ △교육원 교육부장 정도 스님의 ‘한국 불교와 석전영호의 위상’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의 ‘석전의 계율관과 <계율약전>’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신규택 연세대 교수의 ‘일제강점기 불교와 석전의 교학이념’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영호(석전) 전호(한영)와 중앙불교전문학교’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한암의 공안과 선문답’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혜명 스님의 ‘한암의 선사상과 천태지관’ 등이 발표된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국불교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정성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스님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한 두 스님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미당 서정주를 비롯한 석학들을 배출한 석전 스님(사진 왼쪽)과 오대산 월정사에서 선종을 높인 한암 스님(사진 오른쪽)

라고 강조하며 “한암 스님의 경우 탄허 스님을 석전 스님 문하에서 배우게 하려 했을 정도로 선과 교학의 거봉인 서로를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두 스님은 윤리가 강조되는 시대에 있어 종단을 비구승단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며 인문학 저변에 불교의 영향을 높였다”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표 학회장은 “6살 터울인 이 분들은 모두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중정과 교정을 각각 4차례와 2차례를 역임하신 분들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석을 세우신 시대정신이었다”며 “오늘날 이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을 해보는 것은, 새 시대의 한국불교를 위한 당연한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표 학회장은 “한암 스님과 석전 스님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국불교에 요청되는 현대의 요구와 불교적인 대응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는 “스님의 탄신 94주년을 맞아 첫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며 “내년에는 스님과 인연이 있는 박성배 교수 등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다. 1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일본 최고 불교학자, 기무라 교수 특강

동국대에서 4월 10일 ‘불교학이 나아갈 길’ 주제로

현존하는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가되는 기무라 기요타카 도쿄대 명예교수 <사진>(초루미대학 총장)이 4월 10일 ‘불교학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국대에서 강연한다.

이번 특강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과 불교대학 초청으로 진행된다. 기무라 교수는 화엄학자로서 학문의 길과 일본 조동종의 승려로서 성직자의 길이라는 두 길을 걸어온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가받는다. 1940년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나 도쿄교육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75년 도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오랜기간 도쿄대 교수로 봉직했다. 화엄학 연구에서는 1977년 <초기 중국불교사상사의 연구>를 간행하여 화엄경의 연구, 화엄경류의 이역 및 위경, 지론, 섭론, 삼론 등의 화엄경의 연구사를 배경으로 하는 지엄스님의 화엄학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1992년에는 중국초기부터 요(遼)와 명(明)에 이르는 <중국화엄사상사>를 저술하였으며, 최근



에는 화엄경별행본들에 대한 주석 작업을 간행하여 화엄학 연구에 완성도를 더하였다. 한편, 지엄스님을 연구하면서 지엄의 제자 의상스님에게 자연히 관심을 가졌고, 특히 고 김지견 교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상뿐 아니라, 원효, 균여 등의 한국불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남겼다.

기무라 교수는 미리 보낸 발제문을 통해 “불교는 석존의 가르침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가르침에 기반한 불교문화의 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무라 교수는 또, 현대적 관점에서 세계에 퍼진 여러 국가의 불교의 지역적 정의를 어떻게 확정할 지와 문헌학적 연구 방법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불교문예연구, ‘그림과 불교미술’ 학술대회

동방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차)는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동방대학원대학 M401 세미나실에서 ‘우리 그림과 불교 미술의 만남’이란 주제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홍윤식 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가 ‘한국 불교미술의 특징’이란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스지미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고려 수월관음도에 나

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조영옥 미술평론가의 ‘단원 김홍도의 화풍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추사의 세한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진철문 동국대 강의교수의 ‘장욱진의 화풍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등이 발표된다. (02)3668-9846

노덕현 기자

## 수행자의 사표, 해암 스님 첫 조명

해암선사문화진흥회, 4월 16일 동국대서 첫 학술대회

50년 동안의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일일 일식 수행을 실천하며 후학들에게 ‘공부하다 죽어라’는 경계를 아끼지 않았던 조계종 前종정 해암 스님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린다.

해암선사문화진흥회(회장 성법)는 4월 16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해암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해암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27세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8세이던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우봉, 자운, 보문, 도우, 법전, 일도 스님 등 20여 남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다. 이후 오대산

서대, 동화사 금당선원, 통도사 극락암선원, 천축사 무문관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철저한 두타행으로 수행정진한 스님은 1993년 해인총림 6대 방장에 추대됐으며 1999년 4월 조계종 제10대 중정에 추대되 종단 안정에 기여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여연 스님이 기조발제로 ‘해암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하며 동국대 교수 종호 스님이 ‘해암 선사의 선사상과 수행방법’을 통해 스님의 선종을 조명한다. 또 조계종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불교리더십 형성과 하화종생’을 통해 해암 스님이 보여준 리더십과 현대사회와의 접합점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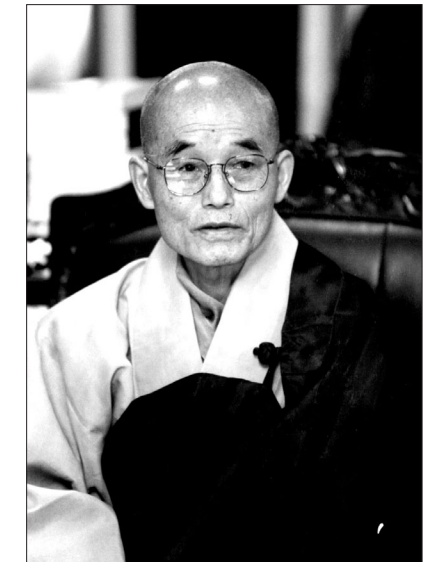
‘공부하다 죽어라’ 정진 강조

청정 계행·두타행 실천수법

수행법·선종·리더십 고찰

해암문도회를 대표해 원각 스님(원당암 감원,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은 “해암 스님은 오는 대승을 거절치 않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 노력했다. 후학에게 항상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꾸짖음 마저도 아끼지 않았다”며 “울곧았던 스님의 모습을 통해 선의 본정신을 살려 한국불교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한발짝 다가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암선사문화진흥회는 포교·교



조계종 前종정 해암 스님

육·승가복지·사회복지·장학·문화·다문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암 스님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선양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됐다.

노덕현 기자

## 한국전통지화보존회 美서 ‘지화 워크숍’

한국전통지화보존회(회장 석용, 송덕사 주지)는 한미문화예술재단과 함께 4월 22~26일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토마스스톤 고등학교 등지에서 ‘한국문화교실-다리’에서 전통지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미문화예술재단의 제9회 아태문화

페스티벌 주요 행사로 진행되는 전통지화 워크숍에서 석용 스님은 전통지화 및 연꽃등 만들기를 비롯해, 법고루, 나비춤, 바라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031)666-3180

노덕현 기자

##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 리더스 아카데미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은 부여군과 함께 4월 9일부터 12월까지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제3기 전통문화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 아카데미는 △사비성 천도와 사비도성 백백제 성곽의 이해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일본의 고도 육성 사례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 △고도 부여의 발전 방안과 한국의 명승문화재 이해 등, 문화재의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수강생의 눈높이와 고도 부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강의도 진행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2년부터 ‘전통문화 리더스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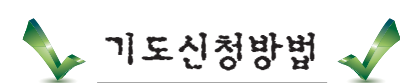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